

러시아, 최신형 미그29MT 선보여

미그기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인 미그-29SMT 전투기가 29일 시험생산 공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그-29 수석 설계사 발레리 노비코프는 이 전투기가 내년초 리페츠크시에 있는 러시아 공군 훈련 센터로 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비코프는 러시아 국방부가 금년초 150대에서 180대에 이르는 미그-29 전투기를 미그-29SMT 형으로 개량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량 대상은 주로 지난 10년간 생산된 미그-29기들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2020년까지 러시아 공군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그-29기는 개량을 통해 전투능력이 8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비코프는 “신예 전투기는 다목적 전투기로 전투기와 요격기, 공격기, 정찰기, 그리고 미국의 조기경보기 AWACS에 해당하는 A-50기와 협력하여 항공 통제소 역할등을 수행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그-29SMT 전투기는 러시아와 외국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무기등 어떠한 무기도

적재할수 있다고 노비코프는 덧붙였다.

JSF 개발 분담 제작방식에 합의

록히드 마틴이 이끄는 JSF(Joint Strike Fighter)팀은 파트너들과 분담 제작방식에 첫 합의를 했다. 록히드 마틴은 전방부와 날개부분을, 노드롭 그루만은 동체개발을, 영국의 BAe는 후방부분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식적인 협정서 체결은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동체부분은 노드롭 그루만사가 F/A18이나 보잉 747을 통해서 경험한 상태이며, BAe는 유로파이터 2000의 후방부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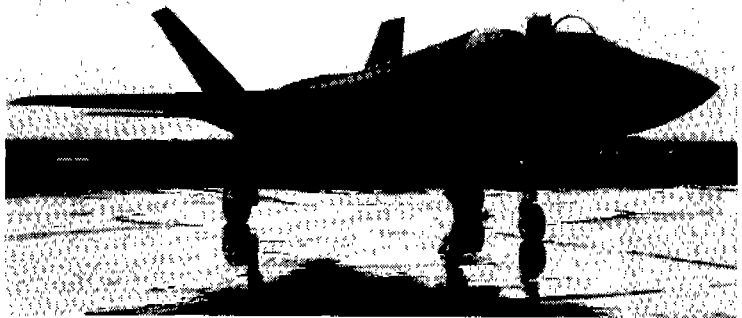
이외에도 JSF프로그램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부품품 생산에 공동 참여하며 이탈리아, 터키, 이스라엘 등도 참

가할 예정으로 미국은 최소 2,800대의 생산을 원하고 있지만 국제 파트너들은 약 5,000대 가량의 생산을 원하고 있다. 인도는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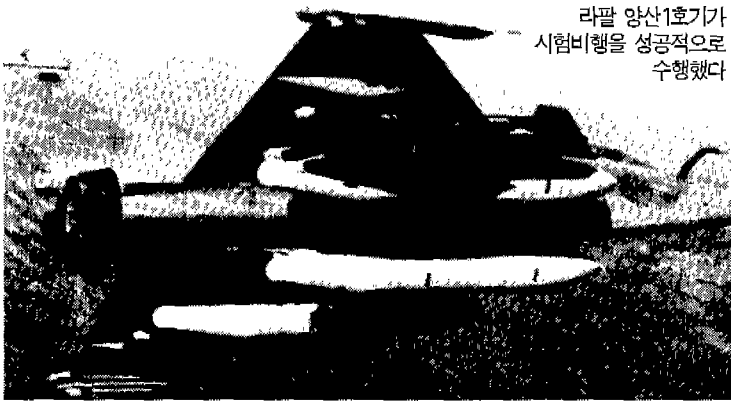
타이완, 미 미사일 구입중단 국산 미사일 대체 가능성

타이완 군은 미국산 스텔거 미사일의 추가 구입을 중단하고, 이를 국산 미사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정된 도입분의 절반가량인 약 1천 3백기의 스텔거 미사일을 도입했으나 더 이상 미국산 미사일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소식통은 대공미사일이 필요할 경우 타이완 중산과학기술원이 개발한 티엔치엔-1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동 생산예정중인 JSF프로그램



라팔 양산1호기가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라팔, 양산1호기 치녀비행 실시

프랑스 공군용 복좌기인 라팔 양산1호기가 치녀비행을 실시하였다. 대서양 상공에서 1시간 동안의 성공적인 비행을 마친 라팔은 294대를 프랑스 공군과 해군에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인도를 시작하여 2001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수출용은 2002년부터 인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라팔 성능 개량을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닷소사와 'F2표준' 개발을 위한 1차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1차단계로 기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운영체계 향상을 위한 '모듈러 예비오닉'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F2표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될 48대의 라팔에 적용될 것이며 올해부터 2003년까지 인도받기로 한 라팔중 13대에

도 장착할 예정이다. F2형은 공대공 미사일과 전자광학 유도탄을 장착할 계획이다. 또한 공대지 레이더 장착으로 공대지 기능을 강화한 F3형을 개발할 계획이며, F3형 전투기는 2003년까지는 생산할 계획이 없으며, F3형은 2010년에 업데이트 할 F4형이 마지막 항공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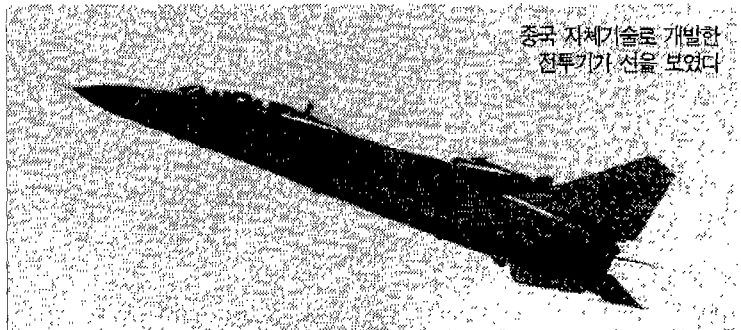
닷소는 생산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와의 협상속에 지연되어 수출을 원하는 닷소사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라팔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한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에 판매를 원하나 잠재적 수요자들은 아직 개발

중인 F4형과 같은 다기능을 원하고 있다. 첫번째 생산기인 라팔 B301은 F4형의 개발을 위해 남겨 두고 있다.

중국, 자체개발 공격용 전투기 선보여

중국은 자체기술로 생산한 전투기 Fighter-Bomber China-1(FBC-1)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였다.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장착한 등 전투기는 Xian 연구소에서 설계시 컴퓨터를 이용 개발한 것으로 제작은 Xian 항공기회사에서 담당하였다.

현재까지 시험용을 포함 7대를 생산하였으며, 등 항공기는 복좌형으로 관성항법장치와 GPS 항법시스템을 장착하였다. 순항속도는 1,210kph이며, 전투반경은 1,650km이다. 또한 6개의 폭탄과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며 각 날개에는 공대공미사를 장착할 수 있다.



중국 자체기술로 개발한 전투기가 선을 보였다